광남일보

"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 대선공약에 반영"
광주경총 촉구…신산업 등 분야별 제시 7

형형색색 봄꽃 보며 '힐링' 만끽
10~11일 장성 황룡강 길동무축제 개최 8

고흥, 청년 머무는 산업 생태계 구축
국비 80억 확보…청정식품단지 경쟁력 강화 9

목포 출신 재독화가 정영창 '오월 전시'
회화·설치…예술이빽그라운드 등서 31일까지 11

조간 제783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음력 4월 12일)

8일 오전 광주 서구 서창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연락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박지원·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지금은 이재명…미래는 호남이 연다"

민주당, 대선 '광주 선거대책위' 출범…본격 세몰이

전직 시장·국회의원·시민사회 등 300명 참여 후끈

선택! 대선 D-25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향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서구 서창동 선거연락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렸다.

▶관련기사 2·3·4·5면

출범식에는 양부남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불교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지선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 선대위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는 양부남 위원장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는 이종석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지선스님, 오은도 원불교 교구장, 김승원 광민회 상임대표,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민형배·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등이 인선됐다. 지역 종교계, 시민사회, 재계, 전문직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통합 선대위가 구성됐다. 이어 상임고문단에는 박광태·이용섭 전 광주시장, 박혜자·송갑석·이병훈·이형석 전 광주시당 위원장, 이정희 전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선돼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으로 당의 안정적 운영과 전략적 방향 설정에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김영남 광주시당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영호 전 남구청장, 서대석 전 서구청장, 유태명 전 동구청장, 윤종해 전 광주시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여했고, 공동선거대책부위원장에는 김용집·김동찬·이은방·윤봉근·조호권·정무창·조영표 전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선거대책본부장에는 현 광주시의원 19명과 기초의회 의장 5명, 황정희 비전앤플랜 대표, 정명철 더민주혁신회의 광주대표, 성현출 만민공동회 대표, 김경은 먹사니즘 대표 등이 인선됐다.

공보단장에는 심철의 시의원, 총괄특보단장은 김영남 전 광주시의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차승세 전 광주시당 정책전문위원, 정책본부장에 명진 시의원, 조직본부장에 김태영 전 광주시당 총무국장, 홍보본부장에 박진원 전 광주시당 홍보소통국장, 유세본부장에 공병철·백종한 구의원 등이 참여했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임박'

교육부 통합 심사 이달 말 승인 유력

유사 학과 조정·통합, 정원 일부 감축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며, 이르면 이달 말 교육부 승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는 최근 목포대에서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오는 12일 제6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두 대학은 오는 2026년 3월 '통합 국립목포대학교' 개교를 목표로 통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기능·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지난해 초 통합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2월 25일 총장과 교수진이 모여 학과 조정 등을 논의했고,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목포대에서 통합 실사를 실시했다.

통합안이 승인될 경우, 학교 이름은 '국립목포대학교'로 통합되며, 전남도립대는 목포대의 분교 체제로 편입돼 담양캠퍼스와 장흥캠퍼스로 운영된다.

학과 구조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다. 전남도립대는 기존 15개 학과에서 13개로 조정되며, 목포대는 현재의 61개 학과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문화크리에이터 전공, 스마트해양시스템 전공, 자율전공학과 등 3개 전공이 신설되고, 드론기계학과와 AI드론학과는 '항공드론융합전공'으로 통합된다.

통합에 따라 양 대학의 총 정원은 기존 1894명에서 177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학사 운영은 기존처럼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제도를 병행하며, 두 제도 간 연계도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특히 중복 학과의 경우 2년제 전문학사 취득 후 유사한 전공의 3·4학년에 진학할 수 있는 연계 진학 체계가 도입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합 이후 학과 구성 등은 양 대학이 자율적으로 협의 중이므로 최종안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목포대와 전남도립대 외에도 3개 대학이 함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이달 말께 통합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동구청~조선대 사거리 도로 확장공사 본격화

왕복 4차선→3차선 축소 운영…내년 상반기 준공

상습 차량 정체 구간인 광주 동구청~조선대학교 사거리 구간 도로 확장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8일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도심지 도로망 기능 개선 사업 중 하나로 왕복 4차로인 광주 동구청~조선대 사거리 구간(375m)의 도로 폭을 20m에서 30m로 확장(왕복 5차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예산 142억원을 투입해 2023년 5~7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건축물 철거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2024년 4월 광주시 문화유산위원회가 공사 구간에 광주시 문화재자료 제20호 광주읍성유허가 있어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이후 광주종합건설본부는 지난 5월부터 이 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 시굴 발굴조사'에 들어갔다.

발굴 결과 7월 1~5일 집터, 창고터 등 유구가 일부 식별됐고, 8월 19~31일 서석동 27-32 일원(586㎡)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조선시대 수혈 6기, 구 4기, 다수의 주혈과 담장(석열) 1기 등 유구가 확인됐다. 자기, 수막새, 암키와, 수키와, 도기 저부, 도기 동체부 등 유물 42점도 출토됐다.

이에 따라 도로 확장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지만, 광주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후 광주종합건설본부는 지난달 29일 광주경찰청과의 사업 협의를 통해 공사 기간 해당 도로를 왕복 4차선에서 왕복 3차선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동구청에서 조선대 방향(서남로 2~34) 구간 인도 확장 공사를 진행한다.

▶2면에 계속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전남 오늘 최대 80㎜ 비…강풍도

9일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80㎜의 비가 내리겠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9일 광주·전남지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전면의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비는 9일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북부지역 10~40㎜, 전남 남부지역 20~60㎜(많은 곳 80㎜ 이상)다.

특히 전남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예보, 산사태나 축대·옹벽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5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보됐다.

많은 양의 비와 함께 순간풍속 15㎧의 강풍도 불겠다. 저기압과 현재 우리나라에 맑은 날씨를 선사한 고기압 사이 좁은 길로 남풍이 불면서 바람이 거세겠다.

비가 그친 뒤에도 북서풍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0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